

#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1	<p>A, B 각각은 무엇? <span style="float: right;">135p</span></p> <p>A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 저하,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대표자 등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B(이)가 주목받게 되었다. B(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을 장악한 쪽에서의 정보 조작 가능성, 선동가의 현혹에 의한 포퓰리즘의 가능성 등 위험성도 안고 있다.</p>
2	<p>누구? <span style="float: right;">136p</span></p> <p>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p>
3	<p>누구? <span style="float: right;">136p</span></p> <p>“(자연 상태의) 자연법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라.’고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강제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자연적 정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념은 우리를 불공평, 자만심, 복수심으로 이끈다. 칼 없는 신약(信約)은 다만 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힘이 전혀 없다.”</p>
4	<p>A은(는) 무엇? <span style="float: right;">140p</span></p> <p>대체로 A은(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관심을 보호하는 한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인민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정부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만일 인민에 의한 지배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A은(는) 그것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p>
5	<p>A, B은(는)는 각각 무엇? <span style="float: right;">141p</span></p> <p>무연고(無緣故)적 자아와 연고적 자아에 대한 논쟁은 정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해 이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민권 운동에 대해 A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정당화할 것이며, B은(는) 국가라는 공동의 삶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시민들의 자격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었다고 정당화할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경우, A은(는) 학생들을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주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바람에서 공교육을 지지한다. 반면 B은(는) 학생들을 공적 과제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공교육을 지지한다.</p>

1. A : 대의 민주주의, B : 전자 민주주의 2. 로크 3. 홉스 (여유가 있다면 ‘정치’ 과목 I단원의 사회 계약설을 공부해보세요. ‘윤리’에 나오는 사회계약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자유주의 5. A : 자유주의 B : 공동체주의